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다른 때는 뒷산 낮은 언덕길을 한바퀴 걷는 것이 정해진 산책 코스이지만, 오늘은 식사가 늦어져 녹음이 우거지고 어두컴컴한 산길이 내키지 않아 좀 멀더라도 마을 경계를 흐르는 창능천(昌陵川) 둑길로 방향을 고쳐 잡았다.

매연과 소음이 가득찬 통일로

는 교회의 붉게 빛나고 있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자 4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늦은봄, 개척(開拓)한지 얼마 되지않던 우리교회로 신학교를 갓 나온 젊고 아름다운 여자 전도사가 부임하여 교회 아래에 있던 우리집 아랫방에서 자취를 하였다.

하얀 저고리에 까만 통치마를 입은, 유난히 살결이 희고 목이 가냘픈 그녀를 나는 좋아 하였다. 그 여인을 짝사랑 한 것이다.

전에 없이 옷에 대해 투정을 부리는가 하면, 하루에도 몇번씩 세수를 하는 등, 별나게 행동하다가 어머니에게 핀잔을 맞기도 하였다. 교회에도 부지런히 나가고 그녀가 맡게 된 부서(部署)마다 입회(入會)하고, 심부름은 남보다 먼저 맡아 하였다. 오직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만이 기쁨이며 즐거움이었다.

그런 나날 중에도 늘 그녀의 관심을 기다렸으나 표정은 담담할 뿐, 다른 아이들과 같이 대하여 줄 뿐이니 혼자서 애태우던 마음은 어느새 원망과 미움으로 바뀌어 버렸다.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그녀가 말을 걸어도 돌아서 버리거나 마주치는 것조차 피해버리곤 했다. 나중에는 동네아이들을 모아 길목을 막고 주일학교에 오려는 어린이들을 겁주어 쫓아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녀가 몇번이나 나무라고 달려며 기도로 간구 했지만, 들은

달맞이 꽃의 추억

를 벗어나 창능천으로 이어지는 소로(小路)를 따라 개울둑 위로 올라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듬성듬성 수양버들이 서 있고 잡초가 무성한 둑은 온통 노랑나비떼로 덮혀 있는 것이 아닌가.

날개를 반쯤 펴고 금방이라고 날아갈듯 앉아 있는 것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노랑나비 떼가 아니라, 이제 막 밤을 맞기 위하여 꽃잎을 반쯤 열고 저녁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달맞이꽃 무리였다.

앞 거드랑이마다 꽃이 피기 때문에 한나무에 5·6개 이상의 꽃이 달리고 군락(群落)을 이루고 있으니, 둑 전체가 온통 노란색으로 덮혀 나비가 떼지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산책도 잊고 바라보다가 개울 건너편 야산(野山) 위에 서 있

차 영 현
(수필가)

척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말을 따라야지 하면서도 정작 말을 걸면 엉뚱한 행동을 하곤 했다. 그녀도 지쳤는지 아무 말이 없었으나, 우연히 마주 칠 때마다 냉기어린 하얀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일 수 없었다. 그때마다 나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고 슬퍼하면서도 마음과 달리 행동은 그녀를 슬프게만 하는 것 뿐이었다.

다음 해 여름날 저녁무렵이었다. 저녁밥을 먹고 바깥 마당에서 놀고 있는 나에게 그녀가 산책을 가자고 한다. 마음 속으로는 반갑고 기쁘면서도 싫다고 하자 갑자기 손목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은 싫어도 같이 가야만 돼”하며 끌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그녀의 손에 잡히자 온몸의 힘이 빠지는 듯한 기분에 저항도 못하고 창능천 독까지 끌려 갔다. 그때에도 어둑해진 독 위에는 달맞이꽃들이 노란 물결을 이루며 밤바람에 일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독 위 풀밭에 말없이 앉으며 들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펴 놓는다. 그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와 성경책이 있었다.

한참 동안을 기도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가 “그동안 내가 무척 미웠니”하며 이번 주 일(主日)만 지나면 충청도쪽으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마지막으로 나와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억지로 끌고 왔노라 하면서 달이 떠오르는 북한산을 하염없이 바

라보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웅덩이로 빠져드는 기분이 되어 나도 모르게 “아니야요 선생님을 좋아해요. 정말 좋아 했어요”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 해 주세요요”하며 머리를 숙이며 두손을 모은다.

남 앞에서 기도는 처음이었으나 정신없이 기도를 하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려버린 나를 달래주는 그녀를 바라보니 달맞이꽃처럼 환하고 고운 얼굴에 어느사이 밤이슬이 맺혔는지 달빛에 반짝 빛나는 것이 별처럼 아름다웠다.

흐느끼며 용서를 비는 나에게 그녀는 나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求)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구절이란 것 외에는 모르는 나에게 왜 그 구절을 읽어 주었는지 한마디 강해도 없이 조용히 읽기를

마치자 나를 위한 기도를 해주어서는 한마리 학처럼 깨끗히 내 곁을 떠나갔다.

지금 달맞이꽃이 40여번이나 피고지는 동안 그녀가 읽어 준 성경 말씀과 그때 흘리던 눈물의 뜻을 깨닫게 되어 그녀가 주고간 크고 깊은 사랑이 험한 인생길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다.

둥근달이 뜨고, 달맞이꽃이 피어나는 밤이 있는 한 그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